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불교와 인연 깊은 꽃

하화청정도(荷花淸淨圖)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책으로 불리우는 <자타카(Jataka, 本生譚)>에 보면, 석가모니부처님은 4아승지집(10만집) 전에 연등불(燃燈佛)이 세상에 출현해 교화할 때 수메다(Sumedha)라고 불리우는 바라문이였다.

연등불이 제타위국에 왔을 때, 제타국 국왕은 도성 내의 모든 꽃과 향을 사들이고, 자신만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메다는 꽃을 구하려 다니다가 이전 500생 동안 아내였던 꽃 파는 여인인 후생(後生)의 아소다라를 만나 내생에 결혼을 약속하고 청련화(靑蓮花)를 받아 연등불에게 바쳤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사슴가죽옷을 땅위에 깔아드리고 내생에 석가모니불이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았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인 선불교(禪佛敎) 기원이 되는 기록인 <대법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의하면, 영취산에서 대법천왕(大梵天王)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세존(世尊)은 대중들에게 이를 내 보았다. 모두가 알 수 없어 잠잠한 가운데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그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정토학(淨土學)의 근간인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아미타경(阿彌陀經)>은 모든 중생들이 왕생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구품연대(九品蓮臺)의 철보연못을 그리고 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9가지 종류의 연꽃 위에 화생(化生)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신심(信心)있는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念誦)하고 있다.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로 대승불교의 대논사(大論師)인 용수보살(龍樹)께서 저술한 인도불교사상의 백과사전이며 중관(中觀)사상의 집대성인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보면, 불상의 대좌(臺座)가 연화좌(蓮華坐)인 이유는 “연꽃이 부드럽고 깨끗함으로써 신력(神力)을 나타내어 그 위에 앉되 꽃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묘법의 자리를 장엄하게 하는 까닭이며, 여러 꽃은 모두 작아 이 꽃같이 크고 향기가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문자유집(文字類編)>에 보면, 연꽃은 수많은 이칭(異稱)을 지니고 있는데, 부용(芙蓉), 백거(白藜, 흰 연꽃), 군자화(君子花), 하화(荷花), 수궁仙子(수궁선자) 등의 명칭이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범어(梵語)의 발음대로 분다리화(芬陀利花, 흰 연꽃), 우바라화(優鉢羅花, 푸른 연꽃), 파두마화(波頭摩花, 붉은 연꽃)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동양의 삼국(三國)인 한중일(韓中日) 최초의 관세음보살 상주도량(常主道場)인 양양 낙산사에 가면, 해수관음상과 원통보전(圓通寶殿) 사이



하화청정도(김홍도 작)

<대지도론>에서 연꽃은 부드럽고 신력을 나타내는 향기가 깨끗한 꽃

단원 김홍도 그린 하화청정도에는 붉고 푸른 잠자리와 연꽃이 그려져

보타전(寶陀殿) 아래 보타락(補陀落)이라는 누락이 있고, 그 밑에 관음지(觀音池)라는 연못이 있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후, 사찰에는 극락연지(極樂蓮池)를 지상(地上)에 형상화한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다. 낙산사 관음지도 역시 그러하다. 관음지를 따라 의상대를 거쳐서, 바닷가에 이르러면, 홍련암(紅蓮庵)이 보인다. 바다에 뜬 파두마화(波頭摩花)인 것이며, 관세음보살님이 연못 위에 홍련(붉은 연꽃)에 앉아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하화청정도는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종이에 채색으로 그린 그림인데,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다. 크기는 세로 32.4cm, 가로 47cm의 화첩에 그려진 그림이다. 붉고 푸른 잠자리 두 마리가 날고, 연과(蓮果)와 홍련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잠자리의 한문명칭은 청정(淸淨), 또는 청유리(淸琉璃)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화청정(蓮花淸淨)이 되고, 그 의미는 맑고 깨끗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말년에 불교에 심취하였다는 단원(檀園)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성취(成就)를 빈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열반(涅槃)



“그는 그렇게 산이 되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느 조간신문은 눈 덮인 안나푸르나 산의 사진 위에 목 매인 제목을 올렸다. 사진은 10월 18일 안나푸르나 등반 중 실종된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 대원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수색작업은 종결됐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내듯 오르고 오

르던 산이 돼버렸다. “죽음”이라 말하지 않겠다”며 소설가 박범신이 글을 이어갔다. “산에 가야 산악인이!” 박영석 대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렁우렁 귓속을 울린다. 그와 그들은 단지 산악인이 아니었다. 우리의 꿈을 대신 짊어지고 간 극상의 모험, 참된 비전이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았다.’ <조선일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산을 오르지도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다. 열반이다. 흙에서 피어났던 나뭇잎들도 이제 피고 지는 일 없이 흩어 되어간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도 가을도 열반에 든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강상 조선 풍계명찰 선사의 '가을 못에서 고기를 구경함(秋潭觀魚)'

산에 병들고 물에 흘러 산다

爲愛遊魚好 (위애유어호) 登臨坐石苔 (등림좌석태) 涼風吹洞府 (양풍취동부) 寒影落泉臺 (한영락천대) 涉澗能飛雨 (적폭능비우) 籟空自出雷 (번공자출뢰) 看來終不厭 (간래종불염) 留此不知回 (유차부지회)

풍계명찰(楓溪明察: 1640~1708) 스님이 가을을 즐기는 모습이다. 가을은 붉은 단풍이 떨어져 드리워진 산골짜기 물속에서 유유히 노니는 살전 물고기를 안상하기 제격이다. 제목을 보자면 노니는 물고기를 묘사할 만도 한데 어디에도 물고기에 대한 이

노니는 물고기 즐기기 딱 맞아 오르고 다다라 돌이끼에 앉았네. 서늘한 바람 신선 골에서 불고 차가운 햇살 천대에 떨어지네. 높다란 폭포 비처럼 날리고 나무끼는 공기 절로 우레 나오네. 보고 있어도 종일 싫증나지 않아 이곳에 머물러 돌아올 줄 몰라라.

아가기 없다. 신선들이 사는 골짜기와 노나라 장공이 지었다는 천대로써 스님의 정취를 비유했고 비처럼 흘날리며 울어대는 폭포에서 스님의 호랑함을 보여줬다. 배경 묘사만으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물고기[魚躍]를 연

상시키게 했고 종일토록 자리 뜨지 못하는 모습에서 관조(鰓照)를 통해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된 도리를 보여줬다.

스님은 '산에 병들고 물에 흘러' 산수 간을 유람했다고 한다. 유람의 목적을 “좁은 곳에 침거하고 있는 것은 표준박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리고 대통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고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헤아리고 여류 별레가 서리를 논하는 꼴이 된다”라고 말했다. 자기의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아집과 편견을 경계하고 '세상 바로보기'와 '새로움의 추구'를 위하여 스님은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처마 끝 깊숙이 가을 햇살이 내리는 날, 도량을 활보하는 낙엽의 수만큼 쌓여가는 길 버리고픈은 딱딱딱 불은 구태(舊態)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재촉한다.



원법 스님(문운사 종강·조계종 교수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뽕 출가의식 지원

신뽕은 미얀마인인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뽕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